

서론

최근 들어 성취뿐만 아니라 인간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고취되면서 개인이 지닌 성향의 강점 및 취약점, 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지원하는 개인 및 환경에 대한 연구들이 보다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성격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성격이 개인의 행동 및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데, 이들 중 인간의 행동을 5가지 기본특질로 설명하는 5요인 성격모형은 성격심리학의 대표적인 성격이론 중 하나로 매우 잘 알려져 있다. 5요인 성격요인들은 성격이 상당부분이 유전적 요인 및 기질에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을 보이기에 개인이나 환경이 개인차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본다(Costa, & McCrae, 1992; Goldberg, 1992). 하지만 성격적 성향은 유전적, 기질적 요인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Dykman(1998)은 오랜 기간 지속되는 개인의 성향으로 목표추구 지향성(Goal-seeking orientation)을 제안한다. 성장추구(Growth-orientation) 및 확인추구(Validation-seeking orientation)라는 하위구인을 지니는 목표추구 지향성은 유전적, 기질적이기보다는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성향이라는 관점을 보인다. 확인추구 지향성은 비판적이고 조건부적 사랑을 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반면 성장추구 지향성은 지지적이고 비판적이지 않으며 수용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것으로 접근한다(Dykman, 1998; Reeve, 2009). 확인추구 지향성과 성장추구 지향성의 구분하는 것은 개인의 특정 목표추구 지향성이 그의 정신건강문제(예: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낮은 자존감, 우울증 등)를 예측하기 때문이다(Dykman, 1998; Reeve, 2009).

목표추구 지향성의 하위구인인 성장추구 지향성은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기회를 탐색하며 자아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성격적 지향성을 지칭하고, 확인추구 지향성은 타인의 인정

및 승인을 받기 위해서 목표를 추구하는 성격적 지향성을 지칭한다(Dykman, 1998). 따라서 성장추구 지향성은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의 핵심을 배우고 향상하는데 초점을 두며, 스트레스 상황이나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수용하는 성향을 보인다. 반면, 확인추구 지향성은 자신의 가치, 능력, 호감도를 확인하고 증명하는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스트레스 상황이나 실패를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을 보인다. 학교교육장면은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 및 학업적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항상 존재하는 맥락임을 고려해 볼 때, 개인의 성장추구 지향성 및 확인추구 지향성은 학습자가 학습에 임하는 학습동기, 태도, 정서, 인지적 경험, 접근과 회피행동, 실패에 대한 두려움, 학습결과 및 심리적 안녕감 등 다양한 변인들과 유의미한 관계를 지닐 수 있음을 자연스럽게 추론해 볼 수 있다.

목표추구 지향성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도 학습장면에서의 학습동기는 높은 학업성취를 예측하기 때문에 향후 진학 및 진로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학습동기는 학습자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고, 선택한 과제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 및 도전을 시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Shunk, 1991), 학습동기의 결여는 학습참여 및 학습결과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킨다(Adelman & Taylor, 1993). 학습동기의 존재 및 결핍유무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학습동기의 질적인 수준이다.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학습동기(예: 자율적 동기)는 건설적인 학습행동을 유발하고,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학습동기(예: 타율적, 강제적 동기)는 비건설적인 학습행동을 유발과 관계된다. 비건설적인 학습행동의 일례로 자기구실 만들기(self-handicapping)을 들 수 있다. 자기구실 만들기(Jones & Rhodewalt, 1982)는 성취장면에서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이는 목표에 도달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목표 도달을 어렵게

하는 상황을 스스로 조성하는 인지전략으로 알려져 있다(Weinstein & Mayer, 1986). 일례로 학습자의 계획적인 노력투입 및 도전의 회피, 시간 끌기, 수행이 힘든 상황을 만들기 등과 같은 부적응적인 행동 표출이 이에 해당된다. 연구결과들은 이러한 부적응적 학습행동은 낮은 학습성취, 학업에 대한 부정 정서, 낮은 자존감을 결과적으로 발생시킴을 보고한다(Tice & Baumeister, 1990; Elliot & Church, 2003).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학습동기 구인들 중에서 학업성취 및 학습결과를 예측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자기조절동기(self-regulation)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고, 성격적 성향으로서의 목표추구 지향성이 과연 학습자들의 자기조절 학습동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한 그 결과 매개변인인 자기조절 학습동기는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자기구실 만들기(self-handicapping)라는 부적응적 학습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론적 배경

변인들의 개념과 발달

여기에서는 본 연구의 변인들인 목표추구 지향성, 자기조절동기, 자기구실 만들기의 조작적 정의를 다루고자 한다.

목표추구 지향성

목표추구는 개인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목표를 조직하고 통합하는 과정 및 행동양식을 지칭한다(Emmons, 1986). Dykman(1998)은 목표지향검사(GOI: Goal Orientation Inventory)를 통해 목표를 추구하는 개인의 성향을 성장추구 지향성과 확인추구 지향성으로 구분하였다. 성장추구 지향성은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 노력하며, 도전적

이거나 어려운 상황도 자기계발의 기회로 인식하는 성향을 보인다. 반면 확인추구 지향성은 타인의 기대나 가치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받으려는 성향을 보인다. 확인추구 지향성은 자신의 가치, 능력, 호감 정도를 타인에게 인정받고 확인받으려 하기 때문에, 도전적이거나 어려운 상황은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성을 보여주며, 자신의 개인적 존재가치를 사회적 잣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 심리적인 부적응의 문제를 경험한다(Dykman, 1998).

자기 조절동기

성격적 성향으로서의 목표추구 지향성과 자기 조절동기(self-regulation)간의 연계성을 암시하는 동기이론으로 자기결정성 동기이론(Ryan & Deci, 2000b)이 있다.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은 자기결정성 혹은 지각된 인과 소재의 연속체에 따라 다양한 자기 조절의 유형을 제시한다. 자기 조절동기의 유형은 내재적 조절(예: 즐겁기 때문에 동기화된다), 동일시 조절(예: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동기화된다), 내사 조절(예: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줄이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동기화된다), 외적 조절(예: 보상을 얻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동기화된다) 등으로 구분된다(Ryan & Connell, 1989). 이 중, 외적 조절을 제외했을 때 내재적 조절(intrinsic regulation) 및 동일시 조절(Identified regulation)과 내사 조절(Introjected regulation)은 목표추구 지향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지닌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외적 조절동기(external regulation)는 유인, 결과 및 보상을 중심으로 강화물(예: 돈 또는 마일리지)과 처벌물(예: 벌금고지서)에 의해 행동이 촉진되는 동기의 한 형태를 지칭한다(Ryan & Deci, 2000b; Reeve, 2009). 외적조절은 유인과 결과라는 환경적 사건에 의해 발생하거나 소멸하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받고자 하는 확인

추구 지향성이나 성장 및 자기실현을 목표로 하는 성장추구 지향성과는 빈약한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다.

내사 조절동기(introjected regulation)는 개인이 죄책감, 두려움, 수치심과 같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며 개인의 내부에 수용되지 않고 강제적으로 투사된 외부의 가치에 순응하는 동기 상태를 지칭한다(Ryan & Deci, 2000b; Reeve, 2009). 개인은 외부의 기준이나, 규칙, 요구를 자신의 머릿속에 투사하고 외적으로 규정된 사고 및 행동 방식에 순응함으로써 자기 존재가치를 확인하고(예: 자부심)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회피하고자 한다. 이처럼 심리적 압박감 및 의무감에 근간하는 동기 상태는 사회적 및 타인의 승인을 갈망하는 개인의 확인추구 지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동일시 조절동기(identified regulation)는 개인이 외부의 규범, 규칙, 가치들(예: 교육의 가치, 재 활용하기)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며 자신의 행동을 그러한 가치들과 조화롭게 합치시키고자 노력하는 형태의 동기 상태를 표현한다. 이러한 동기는 즐거움, 즉각적 보상, 자존감, 처벌, 죄책감의 여부에 의해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가치의 수용 및 실천이 자신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인식에 기반을 두고 출현한다. 따라서 동일시 조절동기와 성장추구 지향성과의 관계가 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리라는 추론은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

내재적 조절동기(intrinsic regulation)는 자신의 흥미를 추구하고, 자신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도전과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도하며 주어진 과업을 숙달하고자 노력하는 타고난 경향성이 출현되는 동기 상태를 지칭한다(Ryan & Deci, 2000b, Reeve, 2009). 내재적 조절동기를 가진 학습자들은 공부를 하는 이유로 “어려운 도전들로부터 기쁨을 얻기 때문에 공부한다.” 또는 “나는 도전을 하고 실력이 향상되는 과정을 즐긴다.” 등으로 반응하는데, 이는 도전적이거나

어려운 상황을 자신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해석하고 더 많이 노력하는 성장추구 지향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임이 유추된다.

자기구실 만들기

자기구실 만들기(self-handicapping)는 개인이 실패의 경험에 의해 자존감이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성공적인 수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조성하는 심리적 기제를 지칭한다(Johns & Berglas, 1978). 자기구실 만들기에 관여하는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략은 노력투입을 회피하거나, 장애물을 만들어 그것을 구실로 하여 성공할 수 없음을 알림으로써 자신의 이미지가 실패로 인해 손상을 입는 것을 회피하고자 한다.

자신의 성공적인 수행을 방해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스스로 장애물을 설치한 후 성취에 실패했을 경우, 이들은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 부족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으로 돌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제를 마감기한까지 미루는 것, 시험 전날 게임이나 과음을 하는 것, 늦잠을 자거나 운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 등 수행결과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한 행동을 하여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변명거리를 미리 만드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자기구실 만들기는 귀인처럼 어떤 일이 발생한 이후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닌, 어떤 일을 수행하기 이전에 선택되는 전략이다. 이는 자신이 실패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증진적 또는 자기보호적인 동기를 미리 상정된 상태를 설명한다. 즉, 학업성취 및 학습 결과가 부정적이라도 이는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닌 환경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실패하거나 위협되는 경험을 하지 않으려 함을 반영한다(Tice & Baumeister, 1990; Elliot & Church, 2003). 실패공포에 대한 방어기제로서의 자기구실 만들기는 자기조절동기 중에서 죄책감이나 수치감과 같은 심리적 억압

에 기반하는 내사 조절동기와 정적 연관이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변인들 간의 관련 연구

목표추구 지향성과 자기조절동기

Dykman(1998)이 제시한 성격적 성향으로서의 목표추구 지향성과 자기조절동기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을 수 없었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는 각각의 구인들을 이론 및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고찰해 보았을 때 목표추구 지향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자기조절동기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어렵지 않게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론적 배경에 근거해보면 성장추구 지향성은 자기향상과 성장, 능력개발,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하려는 강한 동기적 욕구를 예측하며, 확인추구 지향성은 타인의 기대나 가치 조건을 만족시키려는 동기적 욕구를 예측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요약해보면, 성장추구 지향성은 흥미를 추구하고 적정수준의 도전 및 숙달을 추구하는 내재적 조절동기 상태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동시에 과제의 가치 및 유용성을 인지하고 수용하며 노력을 투입하는 동일시 조절동기 또한 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한편, 확인추구지향성은 심리적 압박감과 의무감에 기반하여 외부의 기준, 규칙, 표준에 순응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거나 죄책감이나 수치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 상태인 내사 조절동기를 정적으로 예측함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목표추구 지향성과 자기구실 만들기

Dykman(1998)이 제시한 성장추구 지향성 및 확인추구 지향성과 자기구실 만들기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Dykman(1998)은 그의 연구에서 확인추구 지향성자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전략으로 회피 또는 포기 전략을 선택하고,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높은 우울감을 보임을 시사하였다.

뿐만 아니라, 확인추구 지향성자는 자아를 위협하는 삶의 사건에 노출될 때 지배적으로 높은 불안, 낮은 자존감, 과제 회피 등의 행동양식을 보여줄을 보고한다. 이에 근거하면, 목표추구 지향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자기구실 만들기라는 종속변인이 정적으로 예측되거나 부적으로 예측될 수 있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성장추구를 지향하는 학습자는 개인의 성장 및 자기향상이 주요 목표이기 때문에 성장과 발전에 저해가 되는 부적응적인 자기구실 만들기 과정에 적게 관여할 것이고, 확인추구를 지향하는 학습자는 사회적 승인을 갈망하고 실패공포로부터 자기존중감(self-esteem)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구실 만들기 과정에 더 많이 관여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상기의 논의를 정리하면, 성장추구 지향성은 자기구실 만들기를 부적으로 예측하고 확인추구 지향성은 자기구실 만들기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자기조절동기와 자기구실 만들기

자기구실 만들기는 성취 장면에서 자아존중감이 잠재적으로 위협받는 실패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전략적 행동(Johns & Berglas, 1978)으로 우울, 불안과 관련이 깊으며, 5요인 성격 특성 중에서 신경증과는 정적상관을 보이고, 성실성과는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eondati & Gonida, 2007; Johnson & Bloom, 1995; Nurmi, 1993). 자기구실 만들기를 사용하는 학습자일수록 도전에 대한 회피 또는 철수(withdraw)와 관련된 전략을 사용하며, 낮은 학업성취 및 낮은 자존감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Zuckerman, 1998). 또 다른 연구는 자기구실 만들기에 관여하는 학습자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내부적 목표(Garcia, 1995)를 지니고 있으며, 낮은 자기결정성(Knee & Zuckerman, 1998)과 관련이 있음을 제안한다.

자기조절동기와 자기구실 만들기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이론 및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추론

해 보면, 내재적 조절동기가 활성화된 학습자는 개인의 흥미, 도전, 숙달에 추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구실 만들기를 부적으로 예측할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한편 동일시 조절동기가 활성화 된 학습자는 학습의 가치 및 유용성을 인지하고 수용하며 노력을 투입하고자 하는 동기 상태에 있으므로 자기구실 만들기에 부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반면, 내사 조절동기가 활성화된 학습자는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회피하고, 타인에게 승인을 받고자 하는 갈망에 의해 동기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패공포에 대한 자기보호적 전략으로서 자기구실 만들기를 더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상기의 논의를 정리하면, 내재적 조절동기 및 동일시 조절동기는 자기구실 만들기를 부적으로 예측하고 내사 조절동기는 자기구실 만들기를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연구목적 및 가설

학습자의 목표추구 지향성(성장추구 지향성 대 확인추구 지향성)은 학습자의 자기조절동기의 질적 수준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적응적 또는 부적응적 학업 대처 전략의 관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업의 부적응적인 인지 대처로 알려진 자기구실 만들기는 많은 학습자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국내에서는 자기구실 만들기의 선행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이는 자기구실 만들기과 같은 부적응적 학업전략을 사용하는 학습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Dykman(1998)이 제시한 환경-개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성격특징인 개인의 목표추구 지향성과 실패공포에 대한 부적응적 인지대처방식인 자기구실 만들기의 관계에서 학습동기인 자기조절동기가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면서 이들 변인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가설 및 매개 모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추구 지향성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내재적 조절동기 및 동일시 조절동기가 높을 것이다.

둘째, 확인추구 지향성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내사 조절동기가 높을 것이다.

셋째, 내재적 조절동기 및 동일시 조절동기는 자기구실 만들기를 부적으로 예측하고, 내사 조절동기는 자기구실 만들기를 정적으로 예측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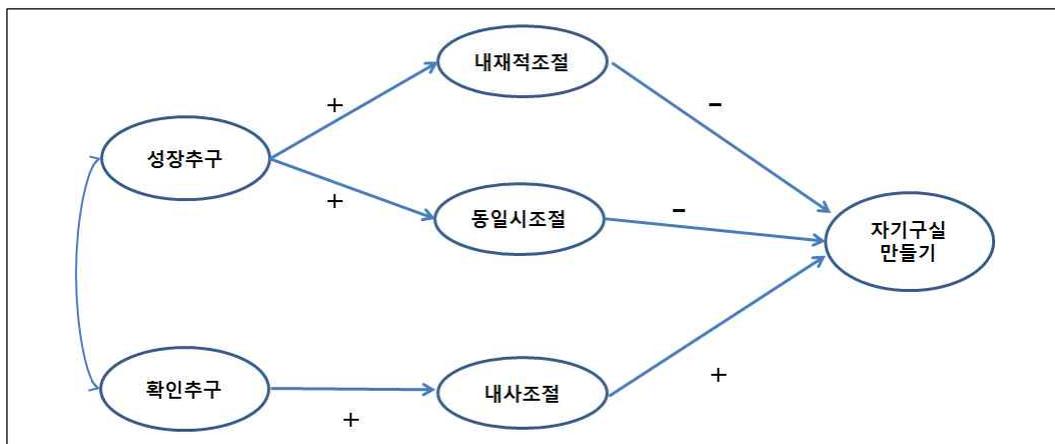


그림 1. 목표추구 지향성, 자기조절동기, 자기구실 만들기의 구조모형

넷째, 매개변인인 자기조절동기의 하위구인인 내재적 조절동기, 동일시 조절동기, 내사 조절동기는 독립변인인 목표추구 지향성의 하위구인인 성장추구 지향성 및 확인추구 지향성과 종속변인인 자기구실 만들기의 관계를 완전 매개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방법 및 절차

연구대상

연구는 지방 소재 4년제 B대학의 대학생 185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불성실한 25명을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은 사회복지학부의 사회복지나 청소년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20.18(SD= 1.64)이며, 성별로는 50명의 남학생(31.3%)과 110명의 여학생(68.8%)이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7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시간은 학생들이 성의껏 응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20분)이 부여되었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측정도구는 관련 선행연구로부터 선별되었다. 첫째는 학습자들의 성격적 성향으로 목표추구 지향성이, 둘째는 학습동기인 자기조절동기의 유형이, 셋째는 부정적 학습행동인 자기구실 만들기이며, 모든 측정 문항은 1(전혀 아니다)에서 5(매우 그렇다)까지의 Likert 척도를 사용한 자기보고식으로 구성되었다. 각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에서 선별되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가 타당한지 검증한 후,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목표추구 지향성(Goal Orientation Inventory:

GOI)

목표추구 지향성은 Dykman(1998)이 개발한 척도로서 성격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각 하위변인마다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변인으로 첫째, 성장추구 지향성은 개인의 성장·학습 또는 자기향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실패나 거절은 나의 성장과 자기발전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한다.”가 대표적이다. 둘째, 확인추구 지향성은 타인의 기대나 가치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서 자기 존재에 대해 인식하는 것으로, “내가 주변 사람들만큼이나 유능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가 대표적이다. 문항 신뢰도(Cronbach α)는 성장추구 지향성은 .89, 확인추구 지향성은 .88로 나타났다.

자기조절동기 척도(Academic Self-regulation

Questionnaire: SRQ-A)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조절동기 척도(Ryan & Connell, 1989)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개인의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외적 통제에서 자율적 자기조절까지의 연속선상에서 학습자들의 학업 영역 행동을 조절하는 유형을 측정한다. 자기조절동기는 5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변인은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변인으로는 첫째, 외적 조절동기는 보상이나 마감시간과 같은 외적 제약이 공부하는 이유가 되는 것으로, “점수를 얻으려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가 대표적이다. 둘째, 내사 조절동기는 해야만 한다는 압력에 의한 것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가 대표적이다. 셋째, 동일시 조절동기는 자발적으로 신념 혹은 행동의 장점과 유용성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에게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가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내재적 조절동기는 과제 자체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배울 때 즐겁기 때문이다”가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관심과 만족감을 대표하는 내재적 조절동기와 행동하려는 목표나 행동조절을 가치 인식을 통해 의식적이고 자발

적으로 내면화하는 동기유형인 동일시조절동기, 내적 강압과 압력의 느낌을 수반하며 행동을 동기화하는 내사조절동기에 초점을 두고, 총 12문항을 활용하였다. 문항신뢰도(Cronbach α)는 내재적 조절동기는 .84, 동일시 조절동기는 .80, 내사 조절동기는 .74로 나타났다.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 척도

(Self-Handicapping Strategies: SHS)

자기구실 만들기는 학습자들이 성공적인 수행에 방해가 되는 학습전략을 사용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Jones와 Rhodewalt(198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25개의 문항으로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다.”가 대표적이다. 문항신뢰도(Cronbach α)는 .71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SPSS 18.0과 AMOS 7.0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변인들의 정규분포 가정과 다중공선성, 상관관계는 SPSS/Win 18.0으로 분석하였다. 검사도구의 적합도 및 자기조절동기와 변인들의 매개효과는 AMOS 7.0으로 이루어졌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의 분석은 SPSS 18.0과 AMOS 7.0

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변인들의 정규분포 가정과 다중공선성, 상관관계는 SPSS/Win 18.0으로 분석하였다. 검사도구의 적합도 및 자기조절동기와 변인들의 매개효과는 AMOS 7.0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분석된 측정변수들의 상관,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은 성장추구 지향성과 확인추구 지향성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02, n. s.$). 성장추구 지향성은 내재적 조절동기($r=.15, p<.05$) 및 동일시 조절동기($r=.29, p<.01$)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내사 조절동기와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r=-.12, n. s.$). 반면에 확인추구 지향성은 내사 조절동기와 정적 상관($r=.39, p<.01$)을 보였으나, 내재적 조절동기($r=-.06, n. s.$) 및 동일시 조절동기($r=.05, n. s.$)와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성장추구 지향성은 자기구실 만들기와 부적상관($r=-.33, p<.01$)을 보였지만, 확인추구지향성은 자기구실 만들기와의 정적상관($r=.35, p<.01$)을 보였다. 자기 조절동기와 자기구실 만들기는 내사 조절동기와 자기구실 만들기는 정적상관($r=.18, p<.05$)을 보였지만, 내재적 조절동기($r=-.10, p<.05$)와 동일시 조절동기($r=-.02, p<.01$)는 부적상관을

표 1. 주요 변인 상관표(n=160)

	<i>M</i>	<i>SD</i>	1	2	3	4	5	6
1. 성장추구 지향성	3.53	.46	1					
2. 확인추구 지향성	3.04	.52	.02	1				
3. 내재적 조절	3.87	.61	.15*	-.06	1			
4. 동일시 조절	3.94	.58	.29**	.05	.72**	1		
5. 내사 조절	2.87	.69	-.12	.39**	.02	.13	1	
6. 자기구실 만들기	2.84	.47	-.33**	.35**	-.10*	-.12**	.18*	1

* $p<.05$, ** $p<.01$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성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주요 변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에 대해서 정규분포에 대한 가정을 검증한 결과 skewness의 값이 가장 큰 것은 확인추구 지향성이지만 절대값들이 2를 넘어서지 않고 있어서 정규분포의 가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Kurtosis에서도 확인추구 지향성의 .76이 가장 큰 값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제외한 변인들의 값은 낮게 나타났다. 정규분포 가정과 관련하여 첨도와 왜도는 각각 2와 7을 넘어서지 않으면 정규분포를 가정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Chou & Bentler, 1995; Hancock & Mueller, 2006)(표 2 참조).

본 연구에서는 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종속변수를 자기구실 만들기로 하여 독립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에서는 변인들이 .48이상으로 나타났고, 분산팽창계수(VIF)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1.28에서 2.87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분산팽창계수는 10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Grimm & Yarnold, 2004).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다중공

선성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자료는 정규분포를 가정하고 분석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ML(Maximum Likelihood)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목표추구 지향성과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목표추구 지향성에 따른 자기구실 만들기 변인의 예측에서 자기조절동기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통해 연구가설 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모형은 성장추구 지향성은 자기조절동기의 하위요인인 내재적 조절 및 동일시 조절동기를 확인추구 지향성은 내사 조절동기를 예측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내재적 조절동기 및 동일시 조절동기는 부적으로, 내사 조절동기는 부적으로 자기구실 만들기를 예측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인 목표추구 지향성, 자기조절동기, 자기구실 만들기를 포함한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과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를 표 3, 표 4,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 차이검증

표 2. 변인들의 정규분포 검토

	목표지향성		자기조절동기			자기구실 만들기
	성장추구	확인추구	내재적 조절	동일시 조절	내사조절	
skewness	-.05	-.61	-.18	-.15	-.05	-.07
kurtosis	.17	.76	.02	-.05	-.22	-.17

표 3.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p	CFI	GFI	RMSEA (90% 신뢰구간)	TLI
연구모형	360.9	201	.01	.91	.92	.066 (.038-.071)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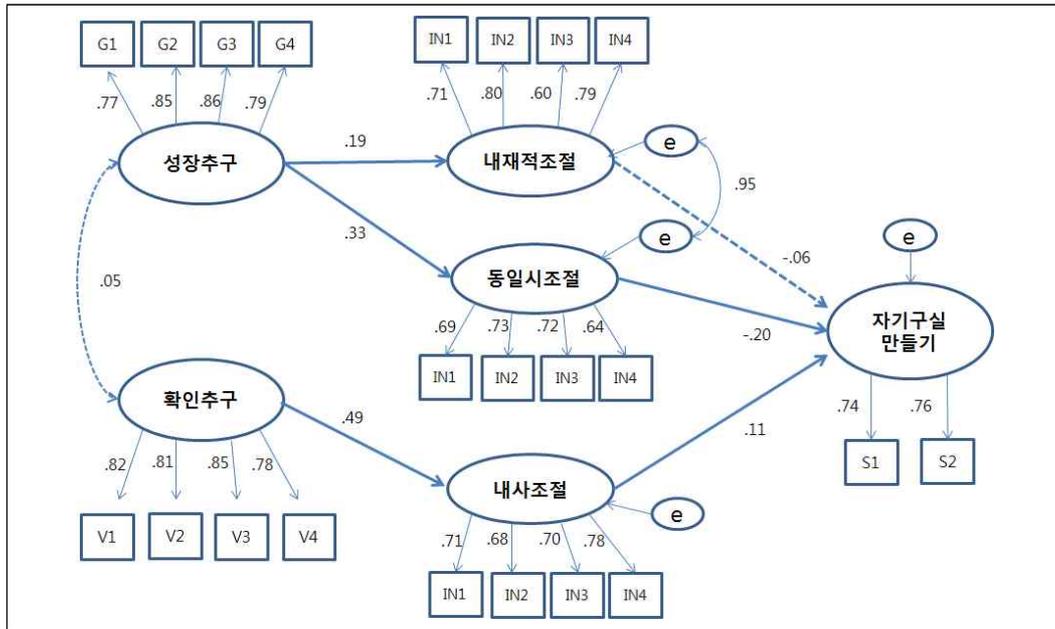


그림 2. 목표추구 지향성과 관련 변인들 간의 구조모형

이 표본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FI, RMSEA의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였고, RMSEA 지수는 .05이하(Browne, & Cudeck, 1993)를 좋은 적합도로 평가하나 90% 신뢰구간에 포함되면 괜찮은 적합도를 해석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모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360.9$, $df=201$, CFI=.91, GFI=.92, RMSEA=.066, TLI=.90).

목표추구 지향성, 자기조절동기, 자기구실 만들기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장추구 지향성이 내재적 조절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19 ($p < .05$), 동일시 조절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33 ($p < .001$)이었고, 확인추구 지향성이 내사 조절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49 ($p < .001$)로 나타났다. 내재적 조절동기가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은 -.06 ($n. s.$), 동일시 조절동기가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은 -.20, 내사 조절동기가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은 .11 ($p < .001$)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목표추구 지향성이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Bootstrap 2000번을 실시하고 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BC)의 신뢰구산을 95%로 설정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도인 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BC)은 95% 신뢰구간은 0을 포함할 경우 $\alpha=.05$ 수준에서 영감을 받아들이는다. 따라서 이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의 값이 5% 수준에서 유의한 값을 의미한다. 성격적 성향인 목표추구 지향성과 관련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성장추구 지향성이 자기구실 만들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내재적 조절동기의 경우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결과이다 ($\beta=-.06$, $n. s.$). 즉, 성장추구 지향성이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영향은 내재적 조절동기가 아닌 동일시 조절에 의한 영향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적 조절동기와 동일시 조절 간의 높은 상관관계($r=.72$, $p < .01$)로 인하

표 4. 목표추구 지향성과 관련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에서 매개효과 검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성장추구 지향성	→ 내재적 조절	.05	.19**	.00	.00	.05	.19**
	→ 동일시 조절	.08	.33**	.00	.00	.08	.33**
	→ 자기구실 만들기	.00	.00	-.33	-.20**	-.33	-.20**
확인추구 지향성	→ 내사 조절	.21	.49*	.00	.00	.21	.49*
	→ 자기구실 만들기	.00	.00	.17	.11**	.16	.11**

여 그 영향력이 동일시 조절동기 구인으로 집중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일시 조절동기가 성장추구 지향성과 자기구실 만들기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동일시 조절동기가 성장추구 지향성에 의해 예측되고 예측된 동일시 조절동기가 자기구실 만들기를 예측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확인추구 지향성은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였고, 동시에 내사 조절동기의 매개효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자기구실 만들기를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내사 조절동기가 확인추구 지향성과 자기구실 만들기 간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내사 조절동기가 확인추구 지향성에 의해 예측되고 예측된 내사 조절동기가 자기구실 만들기를 예측하는 구조적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성격 구인인 목표추구 지향성(Goal-seeking orientation)이 자기 조절동기를 매개로 하여 어떻게 자기구실 만들기라는 부적응적인 인지적 대처 전략을 예측하는 지 매개 모형을 설정한 후 그 구조적 관계를 검증해보았다. 첫째, 주요 변인 간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성장

추구 지향성은 내재적 조절동기 및 동일시 조절동기와 정적 상관을 보였고, 확인추구 지향성은 내사 조절동기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내재적 조절동기와 동일시 조절동기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내사 조절동기는 자기구실 만들기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성장추구 지향성 및 확인추구 지향성과 자기구실 만들기의 관계에서 내재적 조절동기, 동일시 조절동기, 내사 조절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성장추구 지향성 및 확인추구 지향성이 자기구실 만들기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동일시 조절동기와 내사 조절 동기의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완전 매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재적 조절동기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기에 성장추구 지향성과 자기구실 만들기 관계에서 내재적 조절동기는 매개 효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내재적 조절동기와 동일시 조절동기 간의 높은 상관에 의해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추론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 및 매개모형검증을 통해, 성장추구 지향성과 내재적 조절동기 및 동일시 조절동기 간의 상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자기성장, 능력개발,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하려는 성장추구 지향성이 과제 자체에 흥미를 느끼고 도전과 숙달을 추구하는 내재적 조절동기간의 관계, 그리고 성장추구지향성과 -학습에 대한 가치와 유용성을 인식하고를 수용하

는 동일시 조절동기가 서로 연관된다는 연구가 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반면, 확인추구 지향성은 내사 조절동기와 상관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확인추구지향성과 외부 조건에 대한 의무감과 내적 압박감에 의해 동기화 되는 내사 조절동기의 특징이 서로 연관됨을 확인해준다. 이러한 결과는 Croker과 Parker(2004)의 확인추구 지향성자는 높은 불안과 자아관여적 수행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보고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장추구 지향성과 자기구실 만들기 간의 관계는 부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추구 지향성과 자기구실 만들기 간의 관계에는 정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부모의 양육형태와 자기구실 만들기 간의 관계를 살펴본 김지경(2008)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확인추구 지향성자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전략으로 회피 또는 포기 전략을 선택하고,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처했을 때는 높은 수준의 우울, 높은 수준의 불안, 낮은 수준의 자존감을 예측한다는 Dykman(1998)의 연구보고를 지지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자기조절동기의 질적수준은 학교교육장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주로 학습관여 또는 성취와 같은 종속 변인들에 주로 국한되어 온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근거와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자기조절동기의 질적 수준이 부모-자녀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 성격적 성향인 목표추구 지향성과 자기구실 만들기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매개변인임을 상징하고, 이를 연구모형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는 목표추구 지향성과 자기구실 만들기의 관계를 파악할 때, 자기조절동기의 수준과 같은 심리적 변인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목표추구 지향성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자기조절동기의 질적 수준 및 기능의 차이를 유발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는 점에 연구의 의의를 둔다. 셋째, 자신의 가치나 신념에 의한 자기평가가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 영향을 받기 쉬운 확인추구를 지향하는 학습자는 도전적이고 어려운 학습상황에서 자기구실 만들기과 같은 전략을 채택하고, 반면, 자신이 추구하고자하는 것들의 핵심을 배우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성장추구를 지향하는 학습자는 도전적이고 어려운 학습상황을 자신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생각하고,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하더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실용적으로는 가정에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장면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및 상담사에게도 실제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학습자의 성격적 성향으로서의 목표추구지향성에 대한 이해는 자기조절동기의 질적 수준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또한 자기구실 만들기의 관여여부를 예측가능하게 하기에, 이와 같은 실증적 연구 자료는 교사나 부모 또는 상담자로 하여금 학습자를 보다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다소의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표집 대상은 지방 소재 대학의 재학생 185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적용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지역을 확대 표집하여 연구를 실행함으로써 표본의 대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가 참여자들 스스로의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특성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자기보고식 설문방법 뿐만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함께 사용하면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지경 (2008). 자기구실 만들기: 지능에 대한 신념 및 목표성향, 노력/결과중심의 부모 양육태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1), 99-114.
- Chou, C., & Bentler, P. M. (1995). Estimates and tes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pp.37-55). Thousand Oaks, CA: Sage.
- Costa, P. T. Jr., & McCrae, R. R.(1992).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NEO-PI-R) and *NEO Five-Factor Inventory*(NEO-FFI)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Dykman, B. M. (1998). Integrating cognitive and motivational factors in depression: Initial tests of a goal-orientation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1), 139-158.
- Elliot, A. J., & Church, M. (2003). A motivational analysis of defensive pessimism and self-handicapping. *Journal of Personality*, 71(3), 369-396.
- Emmons, R. A. (1986). Personal strivings: An approach to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5), 1058-1068.
- Garcia, T. (1995). The role of motivation strategies in self-regulated learning. *New Direct. Teach. Learn.* 64, 29-42
- Glodberg, L. R. (1992). The development of marker for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Psychological Assessment*, 4, 26-42.
- Jones, E., & Rhodewalt, F. (1982). Self-handicapping scale.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Utah.
- Reeve, J. (2009).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 5th. NJ: Wiley.
- Ryan, R. M., & Connell, J. P. (1989).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and internalization: Examining reasons for acting in two domai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749-761.
- Ryan, R. M., & Deci, E. L. (2000b).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Tice, D. M., & Baumeister, R. F. (1990). Self-Esteem, self-handicapping, and self-presentation: The strategy of inadequate practice. *Journal of Personality*, 58(2), 443-464.
- Zuckerman, M., Kieffer, S. C., & Knee, C. R. (1998). Consequences of self-handicapping: Effects on coping, academic performance and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619-1628.
- 1 차원고접수 : 2014. 01. 12.
수정원고접수 : 2014. 02. 19.
최종게재결정 : 2014. 02. 21.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Goal-seeking Orientation, Self-regulated Motivation, and Self-Handicapping

JiYeon Lee

Hyungshim Jang

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goal-seeking orientation, self-regulated motivation and self-handicapping. One-hundred and eighty five college students completed instruments assessing goal-seeking orientation(growth-seeking, validation-seeking), self-regulated motivation(intrinsic, identified regulation, and introjected regulation) and self-handicapping. Structural analyses showed that growth-seeking contributed positively to intrinsic and identified regulation while validation-seeking contributed positively introjected regulation; intrinsic and identified regulation in turn contributed negatively while introjected regulation contributed positively to self-handicapping. Mediation analyses showed that intrinsic and identified regulation explained the direct effect growth-seeking had on self-handicapping while introjected regulation explained the direct effect validation-seeking had on self-handicapping.

Key words : goal-seeking orientation, self-regulation motivation, self-handicapping